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BETTER PEOPLE WORLD



소셜 디자이너가 꿈꾸는 희망세상 만들기

머릿글 카피라이터 이만재

8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온누리교회 목사 한 홍

커버스토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Health Info 온생명살림학교 원장 김인술

지자체특강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장 김진애

발행인 편지

세상을 보는 눈 (사)지구촌가정훈련원 원장 이희범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회원칼럼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이보규

경영과 한 편의 시 성균관대 SKK GSB 부학장 유필화

문용린칼럼

표지인물 박원순 상임이사 / 사진 오경근 원장

2007 August

8

등록번호: [미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7년 8월 1일 발행인: 정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 주소: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 3500(☎) F.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팀즈 이계경 pas@khdi.or.kr 인쇄: (주)동명인쇄



2007년 한국교육산업대상 3년 연속 수상
 2007년 매경히트상품 2년 연속 선정
 2006년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www.jei-edu.com



“아빠는 민준이의
30년 재능선배님!”

어린이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재능교육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 하나로 달려온 재능교육-
 우수한 교육이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교육미래의 행복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스스로학습법**

JEI 재능교육

학습상담 1588-1132

관계사: 재능아카데미/재능셀프러닝/재능학원/재능대학/재능문화/재능인쇄/재능유통 현지법인: 미국(LA)/중국(북경, 홍콩)/뉴질랜드(오클랜드)

최고급 라이브 컴퓨터

이만재 카피라이터

연 전, 업무관계로 일이 생겨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오후 수도권 공단에 있는 한 전자부품 관련 중견기업을 둘러보야 할 일이 있었다. 역사가 꽤 오래된 회사답게 약간은 보수적이다 싶은 사풍이 피부로 느껴졌고, 경영구조 또한 전형적인 가족회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담당 임원 되는 분이 나를 안내하여 업무시설과 생산설비, 연구시설 등을 두루 둘러 친절하게 필요한 설명을 해주어서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듯이 한 조직의 일원을 보면 그 조직 전체의 어떤 점을 대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마련이다. 안내역을 맡은 임원이 바로 그랬다. 안내 태도가 어찌나 성실하고 자상한지 안내 받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였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 가지가 내심 안타까웠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사무실마다, 또는 공장 작업실마다 폭폭 찌고 있었는데 사장실 말고, 유독 시원하게 냉방공조가 잘 되어있는 방이 두 개가 있었다. 중앙제어실, 즉 고성능 컴퓨터 룸이 그 하나였고, 또 하나는 회사 정문 가까이 있는 고객용 쇼룸이었다.

컴퓨터 룸이라는 설비구조는 그 태생적인 민감성과 정밀성 때문에 최적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냉방을 해준다는 얘기가 일단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거래고객을 위한 쇼룸 또한 방문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것이 상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둘러보던 중 재미있게 내 눈길을 끈 것은 이 회사의 모든 작업실마다 벽에 붙여진 독특한 표어 글귀였다. '땀은 福이다!' 물론 이 경우의 땀은 더운 날 목덜미로 흐르는 그런 땀이 아니라 근로 근면의 미덕과 보편가치를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단어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날씨가 날씨가 보니 그 땀이 이 땀 같고, 이 땀이 그 땀만 같아서 외부인의 눈에는 여간 코믹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어 밑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구겨지거나 축 처진 인상으로 땀에 젖어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음이 눈에 보였다.

저 줄줄 흐르는 땀은 과연 근로의 축복에 해당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았다. 중뿔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 당장에는 꼭 참고 속마음으로만 새기고 말았지만, 그 회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조직이기 쉬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선 중앙제어실의 고성능 컴퓨터를 보자. 물론 그 전산설비들이 값이 비싸긴 할 것이다. 성능도 좋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아무리 좋고 비싸고 고성능인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이름의 컴퓨터만큼 비싸고 고성능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고성능이라고 해봤자 그것들은 인간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반도체 조립품에 불과하다. 그럼 인간은? 바로 전지전능의 신(神)이 만드신, 무한 용량, 무한자동, 무한증폭, 무한확대, 무한연구, 무한자정(自淨), 무한자생(自生), 무한발전의 슈퍼 울트라급 최고성능 컴퓨터가 바로 인간이라는 이름의 '라이브 컴퓨터'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속성은 무엇인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이다. 귀한 인간을 푸대접하고 컴퓨터만 신주 모시듯 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가 아닐지.

또 고객용 쇼룸만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도 문제다. 사업을 제대로 하는 회사의 제1고객은 바깥에서 오는 고객이 아니라 바로 자사 내부의 구성원이 제1고객이어야 옳기 때문이다. 자사 종업원을 제1고객으로 귀히 여기는 회사치고 망하는 회사 없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기업역사를 두루 꿰는 진리인 것이다.

경영자가 진정 회사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쾌적한 작업환경은 기본이다. 컴퓨터보다는 동역 구성원 하나 하나의 잠재역량 발휘에 더 기대를 걸고, 때마다 잘한다 칭찬해 주면서 거기에 지속적인 인간개발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귀땀해드리고 싶다. **KKH**



이만재 카피라이터

1970년대 '카피라이터'라는 용어를 국내에 처음 정착시킨 인물이다. 서울카피라이터즈클럽(SCC) 회장, 대한민국광고대상 심사위원, 공익광고심의위원, 조선 경향 국민 한겨레광고대상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 '카피파워' 대표로서 카피라이터는 물론 인물평론가, 방송인으로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8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8월 2일 연구회는 제주아고라 행사 관계로 휴회합니다.

매주 목요일 07:00~09:00

배움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성공법칙, 사람에게 투자하라

1512회 8월 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성공 조건이라 믿어왔던 지적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85%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인간관계였다. 아무리 지적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도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56세에 잡코리아라는 IT기업을 창업한 김승남 회장은 외국계기업으로부터 1천억원의 회사 인수제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창업멤버들은 모두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되었다.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후회하지 않느냐'는 말도 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평생을 지켜온 소신이었던 '베플면 알파(α)가 붙어 되돌아온다'는 주고받기의 원리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과 힘을 주는 큰 지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변화와 도전에 과감히 맞섰던 인생수업의 교훈이기도 하다.

김승남 회장은 인간관계에 있어 먼저 내어주고 베풀고 화해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하는 방식이며, 스스로의 손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승자의 룰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과 갈등의 현장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나의 성공을 염원하는 조력자를 불러모으는 '착한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주문'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시스템보안 전문기업 조은시스템의 김승남 회장을 초빙하여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인생, 빼앗아 이기는 방식 대신 먼저 주는 경영 철학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옥새에 담긴 장인정신과 숨겨진 비밀

1513회 8월 1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역사적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한반도'가 2006년 개봉하면서 국민들의 옥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옥새의 명칭과 기원, 그리고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숨겨졌던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옥새의 눈으로 보는 우리 역사는 결코 외롭거나 궁핍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옥새는 임금과 국가의 최고 상징물이다. 그 명칭은 옥새(玉璽), 국새(國璽), 어보(御寶), 어새(御璽)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중국 인장의 역사도 우리에게서 배워간 것이라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오직 한 사람의 옥새(玉璽) 전각 마이스터 세불(世佛) 민홍규 선생은 지리산 자락 산청에서 청출어람의 천재성을 인정받아 석불(石佛) 정기호의 옥새 전통제작법 계보를 이어 받았다. 한학과 명상, 동양철학과 자기단련으로 세파를 헤쳐 나왔던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불혹이 지나서야 은둔의 고리를 털어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옥새의 비밀은 바로 선대 '옥새전각장'을 잇는 전수자에게 구전오만 행한 비밀수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사라진 조선시대 옥새 73과(科) 중 40여과를 복원해낸 그는 역사 속의 예술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입증해 낸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후 네 번째 옥새 제작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새제작단 민홍규 단장을 초빙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옥새전각장의 장인정신과 옥새에 숨겨진 역사적 비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 육군대학교 정교과정 졸업 | 고려대 경영대학원 8기 수료 | 고려대 언론대학원 언론과정 6기 수료 | Wharton KMA CEO 과정 수료 | 국방관리연구소 책임연구원 | 총복은행 안전관리실장, 조사부장 | BYC 생명보험 상무이사 | 1993년 (주)조은시스템 창업, 회장 | 1996년 (주)잡코리아 창업 |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비상근 위원

<상훈> 총무무공훈장, 미국동성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국무총리 표창 외

<저서> 고맙습니다



민홍규 대한민국 국새제작단 단장

석불 정기호 문하에서 옥새 전각법 사사, 17년만에 옥새 전각 전수 완료, 조선 옥새 전각장 전수자의 옥새(玉書) 받음 |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 개인 옥새 제작 | 고종대(高宗代) 소실 옥새 5과(대한국새 등) 복원 | 조선시대 국새 복원 | 국립중앙박물관 대한국새 복원 제작

<전시회> 샌프란시스코 국제미술작가전, 전각문자조형(LAP ART) 견본작가 초대전, 국립전주박물관 특별기획 초대전, 부산시립박물관 특별기획 초대전 외

<상훈> 옥새 전각-경기도 으뜸이(명장) 선정, 한국예술평론가협회회 선정 미술부문 최우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예술부문 올해의 예술상, 새 국새의 인문(글자체)과 인뉴(손잡이) 당선 외

<저서> 옥새 전각 전수 어록, LAP ART 1, 2권, 옥새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기 원풍물산 회장

영남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인하대 경영학 박사 | 국방부 연합참모국장 보좌관, 정훈국 보도관 보도계장, 군수차관보 보좌관, 예비군국 편성관리과장, 병무청장 비서관 | 1972년 원풍물산(주) 설립, 대표이사 | BALBOA K, INC. 대표이사 | 노빈 인터내셔널(주) 회장

<상훈> 무성화랑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성공한 리더의 조건, 끝없는 자기개발의 열정

1514회 8월 2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오늘날의 조직은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 혁신과 같은 지적 자원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무형의 지적 자본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명한 리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리더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 앞장서는 것'이다. 현명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욕과 사기를 북돋워주면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한은 위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가꾸기 위한 자기개발에 힘써야 한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주위에 사람들을 모은다. 솔선수범 자기개발의 열정이 조직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경영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지 40년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원풍물산의 이원기 회장은 끝없는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 중 하나다. 74세의 만학도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손에 쥔 그에게 학위는 평생 공부의 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남은 생애도 공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그는 학위를 받는 3년 동안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며 잠재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한다. 리더의 자기개발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일흔의 나이지만 건강은 50대고 학문에 대한 열정은 40대'라는 신념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이원기 회장을 초빙하여 리더의 조건으로의 자기개발에 대한 생각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흥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인도의 성장엔진과 한·인도 협력 과제

1515회 8월 30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인도 경제는 2006년 기준 GDP 성장률이 9.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IT기업들이 초고속성장을 견인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 가속화와 외국인 투자의 급증이 인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떠오르는 경제대국 인도는 생산 및 소비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젊은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구의 50% 이상이 16~50세로 젊다. 이로 인해 경제규모는 중국에 비해 10년 이상 격차가 있지만 인구와 노동력 증가율은 중국의 두 배에 달한다. 현재 다국적기업들은 인도의 풍부한 글로벌 고급인재를 활용해 현지에서 R&D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IT 소프트웨어와 금융분야 산업의 발달은 중국과 차별화된 시장으로써 국내기업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생산, 제품개발, 마케팅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두 나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힘을 합치면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CEPA는 FTA와 동일한 성격의 협정으로 상품 교역, 서비스, 투자, 기술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며,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인도간 협력증진에 힘쓰면서 최근 가야의 김수로왕과 인도 출신 허황옥 왕후의 생애를 그린 '비단황후'라는 소설을 출판해 화제가 되고 있는 파르타사라티 주한 인도대사를 초빙하여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중인 인도의 장점을 알아보고 한·인도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나계사라우 파르타사라티

주한 인도대사

인도 마리스르대 기계공학과 졸업 | 인도 방갈로르대 산업관리, 국제마케팅 석사 | 일반기업체 간부급 엔지니어로 6년간 근무 | 1981년 외무부 입부 | 벨기에, 세네갈, 파키스탄, 영국, 시리아에서 외교관으로 근무 | 인도 델리에서 국장으로 근무 | 인도 재정경제부 대표위원 | 2005년 9월 주한 인도대사 부임

<저서> 망설이는 자객(2005년 소설로 데뷔) / 비단황후



제150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7월 5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리더의 영혼을 가꾸는 전방향 리더십

한 홍 온누리교회 목사 / 햇불 트리니티 리더십센터 원장

우연히 IBM 부사장을 만났다가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임원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360°이 벨류에이션(Evaluation)이라고 하는 IBM의 임원평가는 간부가 될 사람들을 상대로 상사, 동료, 부하들이 1에서 100까지 평가 점수를 매기게 한 뒤 그 결과를 본인에게만 보여주는 방식이다. 회사의 고급 데이터에 맞춰서 저장하고 본인에게만 보여주면, 큰 충격을 받고 약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알아서 고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도취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내 위의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동료가 보는 내가 있고, 부하가 보는 내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리더십이란 전방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성공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먼저 투자

'내가 있으면, 항상 내 위의 사람이 있고, 내 옆의 팀이 있고, 내 밑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부터 시작한다. 중간간부층에게 리더십 강의를 하면 그런 이야기는 윗분들이나 들을 이야기지 자기들은 안 들어도 된다고 한다. 그들은 리더십을 단지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리더십이라는 큰 그림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우리 밑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옆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상사나 어른들이 있다. 항상 위에 업(up)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에게는 잘하는데 밑의 사람은 너무 팽개쳐 둔다. 윗사람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밑의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운(down)리더십을 소홀히 했던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배우는

것은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나, 동료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나, 윗사람

을 움직이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절묘한 조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일까? 미국의 딜 하트는 재계 은퇴 후 정·재계의 톱클래스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했다. 주어진 시간

을 4가지 틀로 봤을 때 어떻게 시간관리를 해서 성공했는지를 물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시간의 50%를 썼다. 나머지 25%를 상향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자기 위에 있는 어른들과 관계를 나누고 그들에게 배우고 대화하고 다루는 데 쓴다고 했다. 나머지 20%는 동료와 팀에게 쓴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데에는 5%밖에 안 쓴다는 것이다.

EQ(Educational Quotient)라는 말을 유행시킨 데니얼 골만 교수는 탁월한 사람을 꺾은 사람으로부터 차별화시키는 척도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했다. 자기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 탁월함과 꺾음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인간에게 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파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브랜드파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파워는 자기 자신

하버드 MBA스쿨에 기록된 스마트한 기업의 가장 우매한 실수는 바로 80년대 콜라전쟁이다. 코카콜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콜라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시장 2위인 펩시부터 10위까지의 브랜드를 합쳐도 코카콜라에 상대가 되지 못했다. 코카콜라사 회장은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다' 혹은 '유엔 가입국보다 콜라를 마시는 나라가 더 많게 할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펩시가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펩시 챌린지(Pepsi challenge)라는 TV 광고였다. 조그만 샵페인 잔 2개에 코카콜라와 펩시를 따르고 소비자에게 마시게 한 뒤 더 맛있는 쪽을 선택하게 하는 광고였다. 그런데 열이면 열 모두 펩시가 맛있고 했다. '신세대 취향의 펩시'라는 광고를 보고 미국이 말갈 뒤집혔다. 코카콜라에서도 자체조사를 했지만 직원들조차도 펩시가 맛있다고 했다. 펩시가 더 묽고 달았던 것이다.

이에 코카콜라는 엄청난 연구비를 투입해 새로운 콜라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이었다. 제품은 모두 반품됐고, 소비자들은 회사에 전화와 항의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뉴코크가 웬말이냐며 코카콜라가 소비자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결국 클래식 콜라가 다시 나왔고, 그 와중에 소비자들은 코카콜라를 떠났다. 이로 인해 13% 정도의 매출이 감소했다.

코카콜라에서 다시 원인분석을 시작했는데, 원인은 뜻밖에 간단했다. 콜라는 더운 날 운동 후 시원한 캔을 따서 별컹컹 들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마실 때 코카콜라의 톡 쏘고 거친 맛을 따라갈 제품이 없다. 그런데 펩시는 묽고 달다. 그래서 조그만 샵페인 잔에 마시게 되면 누구나 펩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라면 샵페인 잔이 아닌 캔 전체를 마셔야 하는데, 영리한 펩시가 그것을 안 것이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이 강한 전장으로 가서는 싸우지 마라'는 말이 있다. 신약전에 능한 적과 산에서 싸우지 말고, 물싸움을 잘하는 적과 수전(水戰)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잘 하는 전투에 적을 끌어내야 한다. 펩시가 정확히 그것을 찍은 것이다. 결국 코카콜라는 브랜드파워를 상실하고 시장에서 참패한 기업의 가장 우매한 실수로 기록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이겠는가. 코카콜라는 그렇게 강하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주위를 봐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자신의 브랜드파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 남의 것을 보고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열정,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파워는 자기 자신이다. 그 누구도 훔쳐 낼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브랜드파워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첩경이다.

그래서 배우기는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한다면 코카콜라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코카콜라는 자신의 브랜드파워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어야 했다. 코카콜라의 포장은 바꿀 수 있고, 광고는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을 타협한다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할 때 그 리더십의 건강한 파워는 시작된다.

리더가 시간과 재능의 50%를 자기 자신을 쉬게 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충전하는 데 보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이 시간이 가장 현명한 투자이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

목사가 잠을 못 자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설교에서 분이 나가고 독이 나간다. 그러면 교인들이 독을 먹는 것이다. 리더가 조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희생한다는 리더는 필요 없다. 가정에 건강하게 가꾸고, 건강한 가정이 줄 수 있는 충전감을 누리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가꾼 사람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것이다.

윗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향 리더십

상향 리더십(upward leadership), 즉 팔로우십(followship)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부(副)'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라도 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이다. 따르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골프나 수영을 배울 때, 선생님이 '저 따라하세요'라고 한다. 성격 급한 사람은 기본만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는 어느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질릴 때까지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정 수준에 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따르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야단만 열심히 친 사람이 힘을 주게 되면 사고가 난다. 순종하는 법, 따르는 법을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다니엘, 요셉, 다윗도 모두

2인자였다. 직위상 내가 톱이 될 지라도 스승이 있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을 자존심상해 하면 안 된다.



교당국 외에는 비밀로 하고 고교 졸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했다. 나머지 95개 팀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캠브리지대학의 실험 목표는 과연 탁월한 드림팀을 만들면 정말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5개 팀은 꼴지를 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팀이 1등부터 10등까지 차지했다. 조사결과 천재들의 드림팀은 모두 자기 생각이 왜 옳은지 설득하는데 주어진 시간을 소비했다. 그런데 1등을 한 팀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1~2명이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3~4명, 실천 과정을 체크하는 관리자가 2~3명 등 모두가 섞여있었다. 이들이 힘을 합쳤을 때 그룹 퍼포먼스에서 최고점이 나온 것이다.

이것을 보고 똑똑한 국민이 모인 우리나라가 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다. 팀워크가 부족한 것이다. 팀워크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하루는 여관방에 들어갔다. 모두가 발이 더러웠는데 그때는 노예가 발을 씻겨주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노예를 쓸 수 없으면 그 중 가장 후배가 발을 씻길만 한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때 예수께서 팀 리더십의 핵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직접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것이다.

우리는 팀 리더십이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다. 누군가의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말할처럼 썩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장 잘난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힘있는 사람, 선배, 어른이 자기를 죽이면 그 팀이 살아난다.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섬김 반기를 포기하고 소매를 걷어 부치고 남의 발을 씻기는 희생이 있었기에 그 팀이 산 것이다. 여러분이 탁월한 팀을 만들고 싶으면 죽어야 한다. 사무실에서 가장 선배가 가장 좋은 날 휴가 가는 것을 포기해줄 때, 사람들이 감동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감동의 리더십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이다. 남과 대화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이유의 90%는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줬다는 섭섭함이

진 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동료와 팀워크를 이루는 것,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등 4가지 리더십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4가지 리더십이 각각 50%, 25%, 20%, 5%의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인 것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팀 리더십

언제나 자기 옆에는 동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팀워크(teamwork)가 아닌가 생각한다. 윗사람 따르는 것이야 나이도 많고 직위도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지만 동료는 다르다. 모든 게 비슷한 동료끼리 팀워크 리더십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똑똑한 개인들이 모일수록 더욱 그렇다.

캠브리지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신입생을 8명씩 소그룹으로 100개 팀을 만들어서 가상 비즈니스프로그램을 줬다. 그 중 5개 팀은 학

다. 동료 리더십에서는 말을 잘할 때 사람이 붙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줄 때 팀워크가 생긴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다운 리더십

마지막으로 하향, 즉 다운 리더십(down leadership)이다. 이 자리에는 조직의 책임자가 많이 계신데, 조직의 책임자가 되면 어떤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더 무섭게 시집살이를 시킨다. 가장 지독한 야당이 가장 무서운 독재자가 된다. 가장 위대

하다던 독재정권에 항의했던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한다. 한을 품은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정상에 앉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리더십을 배워야한다. 하나님은 밑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십은 간단하다.

첫째는 사랑이다. 동생이 언제 형의 사람이 될까? 터진 코피를 닦아주고 깨진 무릎을 싸매 주면서 동생을 업고 집으로 돌아올 때 동생은 형의 가슴에 핏물처럼 스며드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기술이다. 사랑하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다.

보스톤 필하모니를 지휘하는 벤 젤더는 이런 말을 한다. "이 팀을 지휘하면서 가장 중요한 철칙 중 하나는 리더십은 지휘라고 생각한다" 지휘자는 순전히 남을 소리 내게 해서 밥 먹고사는 사람이라 자신의 사명은 남을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 말이 맞다. 자기가 자기를 성공시키면 엘리트고, 남을 성공시키면 리더이다. 여러분의 평가는 이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력이 성공이 된다. 스타플레이어가 스타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휘가 리더십이다. 남을 소리 내게 해주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보스톤 필하모니에는 전 세계의 음악영재들이 온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내가 몇 등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벤 젤더는 신입생들에게 모두 A+를 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최종 학점이다"라고 한단다. 의아해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너희들이 A+라고 믿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받지도 않았다. 이미 A+인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서로를 견주고 등수를 따지는 것은 영혼의 낭비고 죄악이다. 너희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만 생각하라. 너희들은 각각 다른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나의 믿음을 입증시켜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선생이 믿는 것만큼 학생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자기 부하들을 믿는 것이다. 진짜 훌륭한 리더는 밖에 나가서 자기 국민들 흉을 보지 않는다.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결론은 이것이다. '최후의 리더십은 자신 안에 있는 소리를 끌어내고, 남의 안에 있는 소리를 끌어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재능과 멋지고 번뜩이는 무엇인가 있다. 이것은 단지 먼지에 쌓여져 있을 뿐이다. 어렸을 적부터의 상처와 억제된 교육제도 등으로 꺾꽂고 눌러놓았지만 빛나는 보석 같은 무엇인가를 건드려서 터트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그 사람의 인생 포인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리더십의 자질이다. 리더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속에 있는 무언가를 터트려 주는 것이다.

리더는 타인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다. 한 미국 시골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클라리넷을 못 부는 빨간 머리 여학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리더의 터치를 한다. 인간이 인간을 터치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안의 빛을 끌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박하게 보여주는 영화이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음악을 가르친 게 아니다. 클라리넷을 못 부는 게 단순히 음악훈련이 안 돼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이다. 이 여학생의 문제는 너무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압박과 할 수 있는 데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다. 하지만 노을과 같다는 빨강머리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인생은 클라리넷을 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연주되는 것이다.

사실 홀랜드 선생님은 야심만만한 음악가였다. 자신이 만든 오페라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유명한 뮤지컬을 만들어 돈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뉴욕에 가지 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청각장애인이었다. 특수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는 그는 어쩔 수 없이 시골 학교의 음악선생이 된다. 그래도 밤마다 뉴욕 무대에 올릴 작품과 뮤지컬을 계속 쓴다. 그것이 나중에 나오는 홀랜드의 오페라이다. 열심히 작품을 쓰지만, 30년이 가도 뉴욕에 갈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예산삭감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음악과목을 정리해 버렸다. 결국 선생남도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그 가운데 빨강머리 여학생이 놀랍게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무엇이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평가인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주지사가 된 빨강머리 소녀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 "대통령이 꿈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꿈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의 화려함이 탐나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한다. 정말 중요한 리더의 보상은 그 자리가 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미국에서 자란 1.5세대로서 변호사를 준비하다가 목사가 됐다. 지금 친구들은 국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내 연봉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항상 나에게 하는 말이 있다. "네가 우리 중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진가이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한다. 리더십의 터치는 아름다운 것이다.

불꽃같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리더십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안에 있는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휘자가 남의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안의 소리가 너무 크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 안의 약점을 통해서 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소셜 디자이너가 꿈꾸는 희망세상 만들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오래도록 현역활동가로 남아야죠.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사회를 아름답고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고 부르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영원한 현역으로서 이 사회를 디자인해 나가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재단'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싱크 탱크 '희망제작소'에 이르기까지 그의 활동영역을 보면 원래 직업인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그의 명함에서 변호사란 직함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의 삶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혜를 정책적 아이디어로 승화시키는 사회창안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나은행의 지원으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시작했다. 단순한 소액 신용대출이 아니라 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포괄적 경영지원을 통해 우리사회에 기업가 정신을 충만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상을 한 걸음이라도 앞장서서 개선, 개혁, 변화로 이끌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는 박원순 상임이사를 만나 그가 꿈꾸는 희망의 세상 만들기 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진 오경근 원장

희망제작소가 문을 연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했다고 들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사회창안'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전문가들이나 창조적 소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 속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 아이디어로 발굴해나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현장성, 실정성입니다.

제가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회를 디자인하려면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시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사회창안센터죠. 최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가 1400여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참 좋은 아이디어' 189개, '주목할 아이디어'가 375개 정도 됩니다. 시민평가단이 스스로 평가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선별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실천된 것도 있죠.

최근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한국일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검증된 아이디어를 행사부에 제안하면 행사부는 각 정부부처에 배분하고 모니터링을 하죠. 한국일보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이디어의 폭넓은 활용을 돕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와 같은 사회창안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회창안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현재 익산희망연대, 광주전남행복발전소, 평택참여자치연대 등이 활동하고 있죠. 얼마 전 희망제작소는 이들 기관과 지역 사회의 시민 아이디어를 모아 현실화하기 위한 전국 사회창안 네트워크를 결성했어요. 전국 네트워크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내년 초에는 국제모임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평범한 아이디어를 정책적 아이디어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7월 초 희망제작소에서 '함께 만드는 지하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압니다.

희망제작소는 어느 한 영역에 집중하기보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 중에 지하철에 관한 제안들이 많았어요. 저도 독일, 일본, 영국 등을 다니면서 선진국 지하철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모범사례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일본 지하철은 한 달마다 그 모습이 달라질 정도로 개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7월 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본 지하철 개혁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떤 개선사항들이 논의됐는지요.

제가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꿈꾼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하철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쾌적함, 편의성, 안전성에서 앞서야겠죠.

현재 우리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차별적인 광고입니다. 광고가 없는 장소도 있어야 해요. 더욱이 받지 말아야 할 광고들로 인해 바쁘게 오고가는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꼭 개선돼야 합니다.

또 편의성에 있어 현재 지하철역에서는 첫차, 막차 시간표를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어있죠. 이것도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해 배치하는 작은 배려를 보인다면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 지하철역에는 선로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한 '대형 족집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줍기 위해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도 공감하고 가능한 사항들부터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개선이 확정되거나 약속된 내용들도 있나요.

제시된 의견들은 모두 예산과도 연관된 문제라 사실 한꺼번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예로 지하철 객차 손잡이는 그동안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사람들 키가 다르고, 아이들 있고, 여성들이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키높이를 고려해서 높낮이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에 기업가정신이 충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재벌기업들이 경제발전을 선도해왔죠. 심지어 드라마에서조차 재벌만을 다루고 있지 소기업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하는 것은 큰 일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년 1월 하버드비즈니스리뷰(Havard Business Review)지에 '2007년을 획기적으로 바꿀 아이디어 20개'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중 두 번째가 '기업가정신의 일본'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 집중하는 소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죠. 도요타자동차나 소니 같은 대기업도 주목해야하지만 일본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소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 함께 만드는 지하철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박원순 상임이사

- (上)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시작한 희망제작소 산하 기업발전소 창립식
- (下) 소기업발전소 창립식에서 박원순 이사가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희망제작소

물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성장해야겠죠. 하지만 일반 은퇴자나, 주부, 청년실업자들도 기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기업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누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요즘은 은행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측에 소기업발전소에 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죠. 소기업발전소를 통해 은행이 지원하게 되면 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뿐 아니라 경제의 성장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은행의 고객이 될 테니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은 전액 하나은행에서 지원합니다. 은행 산하에 하나희망재단을 만들고 300억원 규모의 '하나희망펀드'를 조성해 대출자금을 출연하는 거죠. 사업의 실질적 콘텐츠는 희망제작소 산하 소기업발전소가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은행으로부터 소기업발전소 설립자금 2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소기업발전소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창업과 기업 경영의 모든 컨설팅을 맡게 됩니다.

창업희망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소기업발전소는 사업의 아이디어,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하나희망재단에서 최종 승인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금리는 연 4%를 넘지 않게 할 계획으로 9월 즈음에는 본격적인 대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마이크로 크레딧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대출해줘서 소모하게 하는 것보다는 창업을 도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상당 수준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상황에 맞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지원해주자고 합의했죠. 그렇게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고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 줄어들 것으로 본 겁니다.

취약계층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취약계층이 가진 아이디어가 좋다면 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은퇴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기업가를 지원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이 되겠죠.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마이크로 크레딧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선 경제발전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요. 그들은 소액으로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천만원의 돈으로는 창업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그라민은행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은행이나 아름다운재단 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고,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상을 달리하니 지원 형태도 달라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금뿐만 아니라 마케팅, 경영컨설팅, 기술, 홍보, 판로개척, 브랜드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죠. 10명 이내의 소기업은 이 부분까지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소기업발전소를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모럴 헤지드'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욱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금부터 시작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정도로 열정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정리가 되겠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소기업은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은행의 이번 결정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320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돈들이 그동안 소모적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어요. 기업에서 하는 사회공헌사업이 신문에 한 줄 기사로 났다가 금새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기금은 우리사회의 인프라를 바꾸고 사회의 변화를 유도해내고, 그것이 하나의 작은 모델이 돼서 파급효과, 확산효과를 내는 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은행으로서는 소기업발전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해서 지원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은행이 사회공헌사업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흔히들 이사님을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보시지요.

우리사회에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구분입니다. 좋은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보존해야 하고, 사회 가치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새로운 가치로 전환해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진보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실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요. 다만 우리사회가 과거로부터 새로운 미래로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니까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진보시켜야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뒷다리를 잡는 사람보다는 세상을 한 걸음이라도 앞장서서 끌어가는데 서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죠. 저는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가 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사회의 유익한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선, 개혁, 진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꺼이 진보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신 추상적, 이론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진전시키는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지역을 방문해 조사활동도 하시고, 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전국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사로도 참여하셨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공부가 되죠. 희망제작소도 앞으로 해야할 사회적 아젠다들을 추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 자료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지방자치 아카데미에도 여러 차례 강연을 위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남 장성군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가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장성아카데미가 성공한 것은 12년간 쉬지 않고

운영해온 '지속성' 때문입니다. 한 두 번의 교육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없지만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 주민들, 지역 리더들이 영향을 받아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리더들을 초청해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장성군이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사님의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의 계획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저는 여전히 현역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딜 가면 뭔가 직책을 맡기려고 하세요. 그보다 저는 현실적, 실천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강연요청도 많은데, 강연도 좋지만 지금 꿈꾸고 있는 일들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일이 주 업무라고 생각해요.


희망제작소 일도 사실 방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 그 일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에 5년 정도는 더 집중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모델, 길을 개척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모임에 나가면 인간개발연구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 보다는도 32년간 한 사업만을 해오

셨다는 지속성은 정말 높이 평가받을만한 일입니다. 일본에 '오다쿠'라고 하는 '특정 분야의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우리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지식과 지혜로써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2004년도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로마인이야기 리더십과정'입니다. 제가 <로마인이야기>를 읽었다고 장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회장님께서 바로 그 아이디어로 CEO를 위한 로마인이야기 독서스쿨을 만들어 내시더군요. 회장의 감각과 열정에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평생교육의 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인간개발연구원이 중추적인 기관으로 성장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박원순 상임이사

1956년 생으로 서울대를 중퇴하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구지검 검사를 거쳐 8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검찰인사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거쳐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있으며, 포스코 사외이사,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잃어버린 생활문화를 찾아서

김인술 온생명살림학교 원장



광복 후 60여 년 동안 우리는 고유의 전통생활문화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걸으려는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속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각종 성인병이 만연하고 있으며, 또한 옷과 집도 서구화되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산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짚어 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레 그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을 되찾자

"식(食)은 명(命)이다"라는 말이 있다. 음식이 곧 생명이라는 말이다.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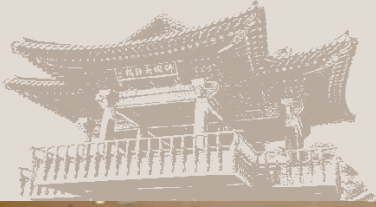
래에 들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당뇨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당뇨병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현상이 오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당뇨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켜 점차로 몸을 망치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라고까지 별명이 붙어 있다. 이러한 병들이 왜 오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보자.

질병(疾病)이란 무엇인가?

옛말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 말을 살짝 바꾸어 '지병지기(知病知己)면 백병불태(百病不殆)' '병을 알고

제541회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6월 21일(목)

좋은 건축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만든다



김진애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2년째 계속되어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성아카데미는 전국 80여개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 산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의 전통을 이어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6월 21일 "좋은 건축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제541회 강연을 해주신 김진애 위원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인가 경쟁력의 척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건축이나 도시, 건설은 대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라',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해라' 하는 식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항상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 환경이나 건축, 도시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단순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개선책을 만들어보라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어디나 갈 수 있는 세계화시대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는 '아트폴리스'라는 작은 공공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소방서, 우체국, 공원, 다리 등을 개선하면서 세계의 명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스페인의 빌바오에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의 분점이 있습니다. 빌바오는 이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는가, 기본적인 SOC 등 사회 인프라를 얼마나 개선하는가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질 높은 공간, 문화적인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이 있는 공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삶의 공간으로 탄생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성에 계시는 여러분도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어제가 '60주년 건설의 날'이었습니다. 코엑스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외국의 전문가들은 건설의 미래, 건축의 미래, 도시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고, 저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미래, 도시건축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편입되면서 도시나 그 외의 산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 하지 말고, 좀 더 엮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령 이곳에 고추와 파프리카가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홍길동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상력이 공공정책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정책이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건축이 새롭게 중요해지는 시대

지금엔 건축과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새롭게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관광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고, 더 멋있게 살고 싶고, 좀 더 건강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미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을 민간에 맡겨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고, 어떤 것이 길게 가고, 어떤 것이 우리 도시와 어울리는가 하는 좋은 안목과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죠.

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 문제도 있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개발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산업계에서는 대내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대외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계에서도 FTA로 인해 어떻게 하면 5년 10년 안에 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는 이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과제 또한 많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중요하죠. 앞으로는 생태문제가 가장 중요해질 겁니다. 장성도 홍길동테마파크나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장성 안에서 환경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다가는 자칫 어떤 폐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 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사회학적 변화입니다. 농촌의 노령화가 많이 진행됐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30%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

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체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일자리 때문에 도시에 모이게 되어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낙향하고 싶거나 돌아오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고급화되어 문화적 욕구가 상승하고 다양화됐어요. 웬만한 것에는 흥미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만의 특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시각이 중요한 거죠.

상상력이 결여된 우리의 건축정책

우리는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토대로 경제가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5개년계획 뒤에 국토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설계를 하는 등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입체적인 상상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즐거워할까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체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건축적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해요.

최근 5~6개월 동안 지방의 공공사업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을 처리하면서 너무 평면적, 획일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건축정책은 사람들이 어떤 때 감동을 받는가, 어떤 때 매력을 느끼고 좀 더 오게끔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겁니다.

건축정책은 건설교통부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자부 등 18개 부처가 공공 건축도시, 공공사업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간 협력과 건축도시 공간에 대한 통합적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해볼만한 때가 됐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국가건설청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가건축가와 민간건축가로 하여금 전체 공공건축물을 관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건축박물관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은 총리실 산하에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문도 하고 디자인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무청에서는 탁월한 건설 부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건축정책을 교육부에서 관장합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환경과 국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김진애 위원장

1953년 생으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 학위를 받았다. KAIST 미래도시연구소 겸임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용산공원권립추진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 위원, IT미래전략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 중이다. 서울포럼 대표도 맡고 있으며, 타임지 선정 '차세대 글로벌 리더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건축정책의 주요 과제 해결돼야

선진화위원회가 하고 있는 건축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건축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만 만들어두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세우고 싶은 곳에만 세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장성 군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두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것은 국가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를 만들 때 현재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새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갖고 있는 건축자산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을 보존해야 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것을 좀 더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축의 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과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많은 연구원이 있었지만 건축도시에 관련된 체계적인 것을 다루는 연구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올해 국책연구기관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출범한 겁니다. 앞으로 용역이나 자문을 받으셔야한다면 이 연구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도시문화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행복도시 내에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문화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각 지역마다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발주체계 개선입니다. 공무원들이 발주할 때는 고난도 있고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착이 생기고 비리가 생기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경쟁이나 설계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공무원들도 기존 방식으로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혁신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발주체계가 기술경쟁이나 새로운 제안경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행복도시, 혁신도시에서는 특별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지방건축 투어를 다녔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만날 인허가는 내줘봤는데, 가서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름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감



■ 김진애 위원장(左), 김용우 부군수(右)

할수록 우리가 좀 더 좋은 건축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좀 더 한국적인 것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가 한국 고유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적이라는 것이 기왓장만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랑할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


다는 것이었고, 셋째가 서로 어울려서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축 환경의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통한옥을 보존하는 것만 아니라 21세기 대중한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R&D도 하고 있고, 몇 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 때 수공예만을 너무 고집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3~4층 한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상상력 발휘하는 행정 펼쳐야

이제는 도시의 위치나 크기가 아니라 기존의 가능성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상상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해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균형특별회계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성에서 홍길동 관련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2차, 3차 프로그램에는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금 지원이 되면 민간에서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나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깔려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죠. 특히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고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돼요.

특히 여러분 같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까 고민해야 합니다. 또 지금보다 좀 더 3차원적으로 미래와 과거를 연결하면서, 사람과 자연과 건축물을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집과 일과 놀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역과 지역 그리고 세계와 서로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사업을 해나가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 질 것입니다. 장성군도 그런 변화를 가져오길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유머·웃음연구회를 개설하고자 한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베스트 셀러 <고품격 유머>의 저자이자 품위유머닷컴의 대표 이상준의 최근작 <웃음과 유머>에서 다음의 두 가지 유머를 읽고 많이 웃었다.

정사모(정치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생겼다. 기자가 모임 운영자에게 물었다. "정치인 좋다는 사람은 드물던데 특이하군요. 어떤 분들이 회원인가요?" 운영자 "주로 교육자, 성직자, 재벌들입니다." 기자 "회원들의 면면도 쟁쟁한데요. 도대체 정치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운영자 "국민들 욕을 정치인들이 죄다 얻어먹는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필자는 '정사모' 유머를 읽다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이사모(이명박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며 한 번 더 웃었다. '국민을 보는 눈'이라는 또 하나의 유머가 있다.

의사 : 인간을 약하다고 본다.

목사와 스님 : 인간을 어리석다고 본다.

법률가 : 인간이 악(惡)하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인, 정치인, 정부는 국민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기업인 : 사람을 다 돈으로 본다.

정치인 : 선거 때는 표로 보고 평소 때는 '졸로 본다.

정부 : 국민을 '봉'으로 본다.(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참여정부 말기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세 납세자들은 드러내 놓고 불평하고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풍자들로 마음속으로는 깨감과 해방감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가 특색있게 개발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웃음은 약', '웃음치료'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 LMI의 창설자이자 '자기개발의 선구자'로 알려진 Paul J. Meyer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웃음과 함께 해 나가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웃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작하거나 예견하거나 막을 겨를도 없이 벌어진 잡다한 인생사를 극복하는 길이 웃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유머를 생활화하는 프랑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훌륭한 격언이 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중에 송두리째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고 보내

는 날이다' 누가 말했는가. '자기 자신에게서 웃는 법을 배운다면 항상 뭉가에 대해서 웃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웃음은 코미디언 같이 웃기는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있지만 항상 자기 생활 속에서 찾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조순 박사는 결혼식 주례사를 할 때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습관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다. 성경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웃음을 습관화하면 울거나 화를 내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쉽게 평상심을 찾을 수 있다.

바바라 R. 체서 박사는 영문학 교수이자 LMI그룹의 CEO 중 한 분이다. 필자의 오랜 지인이기도 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웃음이 결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항상 명량한 마음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웃어라.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유머감각이 매우 다르다면 그 차이점에 민감해라.
- 유머의 타이밍을 고려하라.
- 상대를 비웃지 말고 함께 웃어라.
- 당신 자신의 행동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웃으라고 한다.

-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웃음밖에 없을 때
 - 둘 중 어느 한편이나 둘 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죽일 듯이 숨막히게 죄어 올 때
 -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할 때
 -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
- 결혼생활도 우리의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즐거워야 한다. 유머 감각이 모든 인생살이를 잘 풀리게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웃음이 없다면 부부간의 친구간의 작은 결점들이 크게 부각되어 결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웃음은 고해와 같은 괴로운 인생사를 해결해주는 그 어떤 묘책이나 영약보다 낫다. 웃음은 최상의 영약이다.

필자도 직업상 유머나 웃음이 인간개발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비결임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웃음에 관한 자료와 국내외 유머 서적들을 모으고 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 캠페인을 위해 유머와 웃음처럼 소중한 것이 없음을 터득하고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함께 '유머와 웃음연구회'를 열어보고자 한다. 



결혼의 사명

이희범 (사)지구촌가정훈련원 원장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긴장과 쓰라림에 시달리고 때론 이웃보다 먼 거리감과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짧은 낭만과 긴 권태로 인하여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결혼생활은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정말 우리 부부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해 질 수 없는 것일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자녀들 역시 자신은 잘못 결혼했다고 여기며 사는 불행한 부모들에 의해 한없이 측은하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분명히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행복 위해 결혼

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소유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불행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결혼의 사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한데서 찾을 수 있다.

필자가 세미나를 인도하는 중에 "결혼의 사명을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당황해 한다. 결혼의 사명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듣는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결혼의 사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결혼했다. 결혼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으니 결혼생활이야 뻔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 결혼 후 10여 년 동안은 참 험난한 결혼생활을 했다. 그래서인지 결혼예비학교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강의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사명이다.

생각해 보자. 어떤 것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지 않겠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도 모두 제 자리에 끼울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결혼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혼의 사명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대단히 이기적이다.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하려는가?"라고 물으면 제일 많은 대답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질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인다. 자신들이 고백하는 사랑이 대단히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우선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용해 먹기(?) 위해서'이다. 나의 행복과 편리와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배우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 결혼까지도 '너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부들이 공감을 하고 무릎을 친다. 대부분 사람들의 결혼이 대단히 이기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로워서"

"밥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섹스 파트너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등등.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면 당연히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다. 서로가

결혼한 목적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것 같으면 즉시 억울해 하고 속상해 한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 거침없이 속았다고 말하며 하이킥(?)을 날린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하지 않았어!"

결혼한 목적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는데 상대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피차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 자신이 결혼한 분명한 목적(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잔소리와 바가지와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되어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게 결혼

본래 불쌍(不雙)이란 말은 어원대로 해석한다면 쌍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이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아니고 홀로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외로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쌍(雙)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결혼이요 최초 부부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불쌍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배필로 짝 지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홀로 있는 아담을 외롭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사명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 주는 것이다.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결혼의 사명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자신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신의 유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로움보다는 자신의 외로움을 늘 우선하기 때문에 항상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다.

어느 아내가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창가에 서서 창밖을 무표정하게 내다보고 있더라. 그 모습이 외로워 보여 한 마디 했다.

"당신 오늘 무척 외로워 보이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통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라.

"오늘만 외롭냐, 만날 외롭지."

그때 아내가

"그랬군요. 미안해요. 요즘 제가 당신에게 소홀했던가 봐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 드리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 아내는 남편의 통명스런 대답에 그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얼씨구, 웃기네! 뭐가 만날 외로워? 당신만 외로워? 난 당신과 결혼할 때부터 외로웠어. 외로운 거 좋아하네. 주제를 알아야지 내 참..."

당신은 외로우면 안돼

필자가 강의하는 중에 빼놓지 않고 실습시키는 것이 있다. 배우자를 향해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돼요!"라고 고백하게 하는 일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부들이 눈물을 흘린다. 짧은 말이지만 이 한 마디 속에서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 눈물을 짓는다.

필자 역시 지금도 하루에 한번은 아내를 향해 꼭 고백하는 말이 있다. 아내가 곁에 있던 없던 관계였다. 혼자 운전 중이라도 아내가 기억나면 "당신은 외로우면 안돼..."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아내를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필자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은 한 부부는 다음 날부터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시작했다. 아침에 아내가 먼저 눈을 떴을 때 곧히 자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독백했다.

"당신은..., 외로우면 안돼요!"

살며시 침실에서 빠져 나와 주방에서 남편을 위해 아침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이 잠에서 깨었다. 옆에 함께 누워있던 아내가 없다. 침실에서 거실로 나와보니 아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남편, 아내의 뒤에서 아내를 살며시 안아주며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은 외로우면 안돼!"

그런 고백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신기할 정도로 갈등이 급격히 줄었고 연애했 때 가졌던 사랑의 기운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사랑이라면 이것이 참 사랑이 아닐까? 상대를 외롭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결혼의 사명이요 참 사랑이다.

결혼의 사명을 반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 부부들이여! 분명히 알아! 결혼이란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외롭지 않도록 돕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혼할 자녀들을 가졌는가? 자녀들이 식을 올리기 전에 결혼의 사명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부부들이여!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라. 행복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의 고민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오늘 귀가 하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여보, 내가 어떻게 해 드리면 당신이 행복하시겠어요?" 



이희범 원장

1967년 생으로 수도침례신학교를 마치고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구촌가정훈련원 원장으로 가정행복세미나, 부부행복학교, 결혼예비학교 등 한국 교회에 맞는 가정사역 컨설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가정사역협회 회장, 침례신학대학원 겸임교수, CBS TV, 극동방송 가정사역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회원 소식

- **코리아나박물관·미술관(관장 유상옥)**에서는 7월 5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의 세계적인 작가 류근상 화백展을 개최했다. 한편 이 달 16일 개막하는 네 번째 테마전, '향, 오감만족(香, 五感満足)'은 고고미술품과 향 체험을 곁들이는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12월까지 계속될 기획전에는 화정유(花精油)라든가 향료식물을 압착한 향수를 담았던 분청사기 인화문 향유병과 분말 형태의 향을 담았던 백자청화 향합, 고체 향을 담았던 은칠보향갑 노리개, 한층향을 엮어 만든 비취발향 노리개, 대한제국시대 은제 이화문(李花文) 향갑 등이 선보이게 된다.
- **우리금융그룹(회장 박병원)**이 지난달 11일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기관인 LACP(League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에서 주관한 '2006 전 세계 기업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평가에서 금융산업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 **삼화페인트(부사장 윤석영)**는 지난달 16일 태국 해외현지법인 Golden Arrow Coating을 설립함에 따라 계열회사에 추가한다고 공시하였다. 이번 계열사 추가 결정으로 삼화페인트의 계열사는 5개로 늘어났다.
- **(주)대교(대표 송희용)**는 생활 일본어와 학교 교과학습이 가능한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 '눈높이 일본어 고등과정'과 유아에서 성인까지 학습이 가능한 중국어 프로그램 '차이홍 중국어'를 출시하였다.
- **(주)정림건축(명예회장 김정철)**이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의 설계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 공사는 (주)대우건설 등 4개 회사가 시공을 맡아 2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9년 준공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200억원 규모이다.
- **교보문고(대표 권경현)**는 지난달 20일 강남 교보타워에서 한국 대표작가 71인의 삶과 혼을 추억하는 북세미나 200회 특집 행사를 가졌다. 또한 북클럽 회원 500만 돌파를 기념하여, VIP회원 500명을 초대, 오는 8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명동성당 교스트홀에서 금나새와 함께하는 가족 음악회를 개최한다.
- **삼익THK(주)(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는 지난달 22일 본사 강당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선도기업으로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평화선언식을 가졌다.

• **(주)유한킴벌리(사장 문국현)**는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그린핑거' 출시기념으로 '초록숲 꼬마 요정 선발대회를' 지난달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한편 유한킴벌리 '숲체험 여름학교-그린캠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여 '숲은 더 큰 학교입니다'를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8월 3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백두대간 자락에서 열린다. 이번 그린캠프는 숲의 천이(식물군집의 변화), 별자리보기, 탄소고정작용, 토양구조, 산림수질체험 등의 체험학습으로 꾸며지게 된다.

• **(주)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강영원)**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자동차 설계 전문업체인 (주)씨이에스(대표이사 김삼혁)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외 자동차시장 공동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 **구건서(노무법인B&K 대표노무사) 회원**은 최근 구건서 노무사의 노동법 시리즈 I 〈채용에서 퇴직까지 - 근로기준법〉(중앙경제)를 출판했다. 이 책은 2007년 전면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회원



이승남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센트럴시티빌딩 1층
 · 전 화 : 02-592-4560 · 팩 스 : 02-592-4561
 · 참 고 : 제150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



한 홍 온누리 교회 수석 부목사
 · 주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55번지
 · 전 화 : 02-570-7355 · 팩 스 : 02-570-7077
 · 참 고 : 제150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



경규한 (주)리바트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센트럴시티빌딩 1층
 · 전 화 : 02-3413-8001 · 팩 스 : 02-3480-8020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의 장남 증우군의 결혼식이 지난 7월 19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조천제 한국블랜차드컨설팅그룹(주) 대표이사의 장녀 정연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 2007년 8월 18일(토) 12시
 - 장소 : 웨딩의 전당 2층 토포즈홀 (Tel. 011-727-1930)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 | |
|-------------------|---------|-------|
| 센테일러 | 우덕성 사장 | 8월1일 |
| 새한신용정보(주) | 지광윤 회장 | 8월1일 |
| 기업은행 | 강권석 은행장 | 8월1일 |
| 농업법인조인(주) | 한재권 사장 | 8월2일 |
| 영보상역 | 차수웅 회장 | 8월7일 |
| 영우동상(주) | 양대길 회장 | 8월14일 |
| (주)수성 | 김정배 사장 | 8월15일 |
| 농협중앙회 | 정대근 회장 | 8월15일 |
| Big Dream&Success | 공한수 사장 | 8월27일 |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지난 7월 30일, '우정'에서 모임을 갖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잊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지중해 클럽(회장 박돈서 / 총무 박순영)에서는 7월 13일(금)부터 21일(토)까지 8박 9일 동안 시칠리아, 몰타, 베니스 비엔날레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연구원 소식

- 양병무 본원 원장은 7월 11일 숙명여대 리더십개발원에서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비전수립"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12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연수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혁신성공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24일에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두바이의 기적과 창조경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일본 경제금융인단 한국방문



■ 7월 25일~27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 경제금융인단

오다케 요시키 AFLAC창업자·최고고문 외 21명의 일본금융인단이 본원 초청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금융을 시찰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25일, 김흥식 전 장성군수를 초빙해 '행정경영 마인드, 철저한 인재교육,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제강연'을 듣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26일에는 후지와라 사쿠야 전 일본은행 부총재가 제 151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주기론으로 본 21세기 일본 사회 시스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방문단 전원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100여명의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방문단은 기업은행을 예방하고 강권석 행장과 조병선 기업은행경제연구소장을 만나 한국의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설명을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원은 3년 전부터 한일경제인 교류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데, 특히 일본 금융인들과의 교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오고 있다. 이에 2005년 본원 창립 30주년 기념연구회에서 강연했던 오다케 요시키 최고고문 등 일본관계자들은 본원의 '인간개발' 취지에 동참하고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일본 현지에 본원과의 자매 협력기관으로서 '인간력개발협회'를 지난 4월 공식 출범시켰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인간력개발협회'는 일본 경제인들이 주축이 되어 인간력개발사업, 인간력대상제정 등에 관한 사업을 본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자체 소식

• 행정부, 제2기 지자체 신활력지역 선정



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와 공동으로 제2기(2008~2010년)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70개 시·군을 선정·발표했다.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2기 신활력지역에 충북 제천시 등 13개 시·

군이 새롭게 선정됐다. 신규 지역은 대부분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자체 워크숍 개최, 우수 시·군 벤치마킹, 주민참여 등을 통해 제1기에 비해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됐다. 본원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김제시, 상주시, 양양군, 성주군, 고창군 등은 재선정됐다.

• 거제시, '바다로 세계로' 개최



남해안 해양관광스포츠축제인 '바다로 세계로'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구조라해수욕장 등 거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해양축제는 시원한 바다 스포츠의 진수를 선보이며 거제를 찾는 피서객들의 여름을 시원스레 녹일 예정이다. 축제 시작일인 2일에 맞춰 전국 에어로빅스대회와 삼성중공업 세계슈퍼발리볼대회 등이 열려 해양스포츠의 진수를 보여준다. 피서객과 함께 하는 행사로 비치 RUN&RUN, 해변 씨름왕, 가족 비치발리볼과 저인망 어장체험과 시민화합 떼배놀이 등의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축제 시작일인 2일에 맞춰 전국 에어로빅스대회와 삼성중공업 세계슈퍼발리볼대회 등이 열려 해양스포츠의 진수를 보여준다. 피서객과 함께 하는 행사로 비치 RUN&RUN, 해변 씨름왕, 가족 비치발리볼과 저인망 어장체험과 시민화합 떼배놀이 등의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 고흥군, '2007 고흥우주항공체험전' 개최



2008년 국내 최초로 역사적인 인공우성을 발사하게 될 전남 고흥에서 '2007 고흥우주항공체험전'이 7월 28일부터 10일간 고흥 공설운동장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고흥우주항공체험전은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축제성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지양하고 순수 과학학습 체험전으로 전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우주인훈련코스, 무중력훈련, 우주생활 체험전 등과 원시체험관인 자연사박물관을 마련하여 원시에서 미래 최첨단까지 체험하게 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국내 최초로 역사적인 인공우성을 발사하게 될 전남 고흥에서 '2007 고흥우주항공체험전'이 7월 28일부터 10일간 고흥 공설운동장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고흥우주항공체험전은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축제성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지양하고 순수 과학학습 체험전으로 전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우주인훈련코스, 무중력훈련, 우주생활 체험전 등과 원시체험관인 자연사박물관을 마련하여 원시에서 미래 최첨단까지 체험하게 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안군, '제11회 무안백련축제' 개최



제11회 무안백련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전남 무안군 일로를 회산 백련지에서 열린다. '백련향기 따라 떠나는 웰빙여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무안백련축제는 공

연 행사의 거품을 빼고 백련지 불거리와 웰빙 체험축제로 컨셉을 맞

춘 이른바 '다이어트 축제'로 준비됐다.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여는 마당' 행사로 지름 3m의 초대형 그릇에 내외 귀빈, 관광객,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2007인분 연쌈밥'을 만들어 나누는 잔치를 벌인다.

... 한국엘엠아이 소식

• 성공하는 리더의 EPL 코칭 2기 개강

한국엘엠아이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EPL 코칭 2기 과정'을 개강한다. 본 과정은 지난 40여년 간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LMI의 독특한 자기개발 툴 및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변화는 물론 업무 성과를 놀랍게 향상시켜온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이 번 과정에 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원, 핵심 인재, 전문 직업인과 리더십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주제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EPL (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 일시 : 8월 30일~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30분(총 16주)
- 교육내용 : 리더십 개발을 위한 준비 동기 부여의 이해 태도와 습관 목표 설정과 행동계획 다짐과 시각화 시간 관리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등
- 장소 : 한국경제신문 3층 한경아카데미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 숙명여대 성공하는 리더의 EPL 9, 10기 개강

지난 6월 18일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지향하는 숙명여대에서 교수진 22명이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EPL Kick-off 미팅을 가졌다. 숙대 EPL 9기는 8월 6일 오후 3시, 10기는 8월 27일 오후 7시에 백주년기념관에서 본격적으로 EPL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경숙 총장 등 숙대 교수 80여명은 이미 EPL 과정을 수료한바 있으며, 이번 과정은 안효열 한국엘엠아이 마스터코치가 교육진행(Facilitator)을 맡았다.

■ 한국엘엠아이(주) 라이선시 : Big Dream & Success 모임안내

LMI 제 46차 수료자모임

- 일시 : 8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9시
- 강사 : 오성 방기훈 케리커처리스트(만화가, 풍속화가)
- 주제 : 케리커처 작품세계
- 장소 : BIG DREAM & SUCCESS 안국교육장 (SK HUB B동 402호)
- 참가비 : 3만원(식사비 포함)
- 참가대상 : 개인, 가족, 친지,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양한 변화를 체험한 EPL 리더십과정

삶에 있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난 LMI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

누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 쓰고 세부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 일인 것 같다. 그것도 삶의 영역을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나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정말 무의식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가다 보니 정확히 214개의 꿈의 목록이 생성되었다. 목록을 작성했을 뿐인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이후 평상시 무심코 지나쳤던 현상들이 목표와 관련되어서 자꾸 나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EPL과정의 지난 16주 동안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나 스스로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과정을 등록해놓고 나니 왜 그렇게 희식은 물론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때마다 갈등을 느꼈었다. 그러나 항상 LMI를 택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열심히 실천하고, 적용하고, 나만의 경험을 쌓으면서 가슴 중심에 열정이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열정이 생기니까 좀 더 당당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떳떳하게 '교육이 끝나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상사에게 말할 수 있었다.

LMI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목표달성의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 중 첫 번째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던 금연 성공이다. 현재 3개월째다. 시간 절약 및 담배값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으니까 3개월에 100갑×2500원이니까 250,000원이다. 절약된 시간의 가치는 100갑은 2,000개피×5분은 10,000분이고, 나의 분당 가치가 430원이니까 4,300,000원이나 된다. 담배값과 합치면 4,550,000원, 건강기여 가치 + 맑은 정신으로 업

무에 기여한 가치까지 합치면 더 엄청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성과는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이다. 이 과정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배양하는 훈련이었다. 나는 4명의 팀원들과 일을 했다. 워낙 개성이 강하고 다양해서 리더역할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나는 이 과정을 학습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고민하게 되었다. 깊이 고심한 결과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다가가고, 칭찬하고, 웃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매주 주간 목표를 세우며 실천해 나갔다. 한 주는 팀원 개개인의 장점을 찾아보고, 한 주는 칭찬만 해보고, 한 주는 누가 얘기하든지 끝까지 들었다. 그러자 서서히 팀원들이 변해갔다.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두 달만에 업무성과는 30% 이상 증진되었다.

다른 한 예로 정말 꼼꼼하고 빈틈없고 칼 같은 성격의 여직원이 있었다. 나와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그동안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느냐.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나의 변화를 인정해 주고 또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벅찬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그 때의 강한 느낌과 경험과 실천했던 결과들은 생생하게 기억된다.

LMI 창시자, 폴 마이어 회장의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굳게 믿고 열정을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철학을 나는 내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구욱 하이마트 교육팀장

한국엘엠아이

EPL코칭 과정은 미국 LMI사의 폴 J. 마이어 회장에 의해 개발되어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70 여개국에서 수없이 많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놀랍게 향상되도록 도와 온 검증된 코칭 틀입니다. 국내에서도 롯데 호텔, 육군본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세원그룹을 비롯해 이미 60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동일한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임원 리더십 및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문의하십시오!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02-2202-8700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5층

21세기 변혁과 우리의 대응전략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사회적 변화는 변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가속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물결 속에 먼저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그 중심에 스스로 서서 헤쳐 나가지 못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사회단체나 그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라도 변화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마침내 추락하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조직이나 집단에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 그 요구(need)에 소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앞장서고 그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 한 단계 앞장서 전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선진대열에 합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이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직업을 가지게 되고 가정을 꾸미고 삶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일생을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치의 성취 여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대에 어떤 가치관을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가치관은 자기의 이익이나 배타적인 이기주의보다는 공공이익을 우선 해야 한다. 가족의 중요성을 항상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정보다는 지역사회와 직장 사회단체의 공익에 앞장설 줄 알고, 마침내 국가와 민족의 존엄성과 가치에 올인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지닌 삶을 기본자세로 하는 것이 성숙한 현대사회의 적합한 인간상이라고 할 것이다.

21세기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우리 주변의 변화 중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끝없이 가속되어 가는 속도이다.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였다. 물론 당시로서는 신기록이었다. 그러나 그 후 케냐의 칼 터갓은 2시간 5분 55초의 신기록으로 더욱 빨라졌고,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의 기록도 2시간 7분대였다.

사람이 만든 운반수단을 봐도 BC6000년에 만든 최초의 운반 수단인 마

차는 시속 13km였다. 하지만 그 후 시속 250km의 자동차, 시속 300km의 고속열차, 시속 1200km의 여객기로 가속화되어 왔다. 현대의 인공위성은 시속 38800km로 달리니 속도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반도체는 말 할 것도 없고 이동통신만 보더라도 단순 통화기능을 넘어서 디지털카메라, MP3, DMB, 나아가 유비쿼터스시대로 발전하고, 인공위성의 기능은 무한대로 발달되고 있다. 특히 군사무기의 위력은 핵을 제쳐 두고도 최근 아랍 전쟁의 예를 보더라도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이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은 수직사회를 수평 디지털사회로 변화시켰고 모든 것이 공개되고 노출되는 개방사회로 탈바꿈 시켰다. 이로 인해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발전해 가는 물결이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농업사회에서 형성된 생활풍습이나 가치관은 이제 사이버 세상으로 변화하면서 고립성과 익명성, 신속성이 지배하고, UCC라는 새로운 매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컴퓨터와 TV앞으로 흡수함으로써 기존의 윤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여 전통적 고정관념이 파괴되고 기존 가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숨가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기업도 조직의 경영 혁신이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관리자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고 경쟁 대열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종사원은 일을 시켜주고 봉급만 주면 고맙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고객중심, 종업원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경영자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펀(Fun)경영, 윤리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직장이 자아실현의 장으로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변화를 현실로 직시해야

10년 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일부에서는 홍콩은 더 이상의 홍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본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욱 성장된 홍콩으로 거듭나 축포를 터트리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거대 중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커지면서 최근 동북공정이라는 전략으로 고구려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를 향해 기술 이전을 구걸하고 투자를 손짓하던 때와는 영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세계화 시대, 변혁의 시대에 경제의 성장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전면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던 러시아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우리나라 평창을 제치고 쟁취해 가는 것은 재기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구 소련이 우리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 크나큰 상처를 남겨준 일본도 그들의 침략적 치부를 감추고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후 군사력을 증강하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공공연히 보이고 있다. 또한 MD를 위해 동해안에서 미국과 합동 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가까운 일본을 걸고 우리의 편한 이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가장 밀착된 우방은 사실이다. 하지만 FTA 협상과정이나 쇠퇴기수입 문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나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당면 과제가 토의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간의 국익을 앞에 두고는 아무리 우방이라도 실익을 먼저 챙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막 위의 작은 나라 두바이는 세계 제일의 건축물, 제일의 호텔, 가장 활발한 건설현장 등 세계의 각광을 받으며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분발하지 않으면 세계 12위라는 경제국가의 위상은 순간의 꿈으로 전략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일은 결코 오늘이 아니다, 지혜의 전략 세워야

첫째, 우리의 정부와 정치인, 각종 시민단체, 각 기업 경영의 지도자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경쟁해야 하는 세계 속에 한국이 처해진 현실을 외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만 올인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자신을 던져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 한사람이라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속임수로 정치를 하려거든 여야를 떠나 무대에서 스스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를 자처하려거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둘째,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계경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객체로서의 자신을 재발견하고 오늘에 보다 충실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을 대비하는 정부, 세계 제일의 기업, 그 집단을 이끌 인재를 우선 키워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설 정치인, 외교전문가, 연예인, 운동선수, 과학자 등 분야별 천재를 키워야 그들의 후광으로 우리가 더불어 앞장 설 수 있다.

셋째,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차별화 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무주택 해결도 중요하지만 부자들이 별장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정책적 배려를 함께 해야 한다. 서민의 대중교통정책도 중요하지만 세계 부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오고가는 항공기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농촌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시문제도 중요하다. 자연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골프장 건설도 해야 한다. 다양한 각양각색의 요구는 획일화된 하향식평준화 정책으로 풀 수가 없다.

넷째, 창의적이고 개혁적 시책을 통해 경제를 제1의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한 내일은 결코 오늘이 아니다. 이제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기술자와 건설인이 주도하는 경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 IT 산업개발에 국력을 집결하고, FTA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해 상설 위원회, 연구소의 개설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광한국도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도 개발하고 과감하게 세계화 시대, 변혁의 시대에 경제의 성장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씩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KAHD**



이보규 소장

1942년 생으로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용인대 산업정보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장,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독서휴가로 경영 노하우 찾아보자

휴가철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정신없던 업무를 뒤로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때다. 그들에게 휴가는 경영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짧은 휴가 기간 독서를 통해 하반기 경영 계획을 세우는 CEO들도 많다. 독서경영의 연장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독서를 통해 조직의 부흥을 이끌었다. 조선시대에 세종은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를 시행했다. 유능한 신하들에게 절에 들어가 글을 읽으며 재충전을 하도록 독서휴가를 준 것이다. 독서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나라에서 지급했고, 수시로 음식을 내려 격려했다. 신숙주, 성삼문, 서거정 등의 인재들이 사가독서를 받았으며, 이이의 '동호문답(東湖問答)'도 사가독서 기간에 쓴 글이다. 성종 때는 용산의 폐사(廢寺)를 개조해 남호독서당(南湖讀書堂)이라 이름 붙이고 흥문관의 정식 기구로 삼았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하들에게 3년에 한 번, 한 달의 유급 독서휴가를 줬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 5편을 정독한 뒤 독후감을 제출하는 '셰익스피어 베케이션(Shakespeare Vacation)'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국내 CEO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책을 읽는지 조사했다. 응답자 중 61.7%는 한 달에 1~2권으로 답했고, 5권 이상 독서한다는 답도 11.3%나 됐다. 그만큼 CEO들에게 독서는 삶의 지혜와 함께 경영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경제·경영과 자기계발 서적 중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20권을 선정했다. CEO들은 이기는 습관, 전쟁의 기술, 부의 미래 등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경제·경영 | 자기계발 |
|-----------------------|-----------------------|
| 이기는 습관 (전옥표) | 전쟁의 기술 (로버트 그린) |
|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 경청 (조신영 외) |
| 힘의 이동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 에너지비스 (존 고든) |
| 삼국지 경영학 (최우석) | 남한산성 (김훈) |
| 위키노믹스 (돈 탭스코트 외) |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외) |
| 미래의 물결 (자크 이탈리아) | 무지개 원리 (차동엽) |
| 마인드 세트 (존 나이스비트) | 컬처코드 (콜로테르 라파리유) |
| IBM 한국보고서 (IBM) |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
| CEO, 공전에서 답을 찾다 (유필화) | 내 몸 사용설명서 (마이클 로이젠 외) |
| 몰입의 경영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 아부의 기술 (리처드 스탠걸)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너나 잘해라 1

유필화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일하는 것은
저희 가문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김 전무는 돌아서기만 하면
사장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너나 잘해라

우리 사장은 정말 능력이 없어
경영의 '경'자도 몰라
그리고 내가 조금만 추켜줘도
좋아서 입이 헤벌어져
참 비교 같지 않니

너는 어떻게

사장님, 이 전무가 실적을
부풀려서 보고합니다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군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네
그런데 자네 사업부의 실적은 어떤가

박 부사장은 지나치게 욕심이 많습니다
최 상무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조 상무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네나 잘하게

지은이 소개



유필화 교수

1954년 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과를 졸업하고 美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석사,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87년부터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일기획, 교보생명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한국기업
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을 쏟
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가 삼성
그룹과 미국 MIT의 도움을 얻
어 설립한 SKK GSB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20여
권의 경영학관련 저서를 국내외
에서 출간한 바 있다.

정직해야 발전한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

문용린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 美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 교육부 장관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지난 봄에 들은 충격적인 말이 아직도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한 말인데, 요지는 자기네 대학에서 커닝을 하다 적발된 학생 중에 한국인이 많으며, 그들이 제출한 서류 중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많으며, 졸업생도 아니면서 졸업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참으로 치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저항감보다는 부끄럽지만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유난히도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 성행하는 커닝이 자주 보도되었고, 급기야 어느 유명인사의 박사학위증서가 가짜라는 소동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직이 허물을 벗듯이 외국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직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모르타르(mortar) 즉, 교니(膠泥)다. 교니가 없이 벽돌과 벽돌이 함께 이어질 수 없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간에도 정직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사회발전과 지속에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긍한다. 예컨대, 서로가 법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결여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 편법이 판을 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은 없어지고, 이기기 위해서 불의한 수단들이 대거 동원될 것이다. 이렇게 신뢰가 결여된 사회에서는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의 탄력을 받지 못한다. 구성원들끼리의 이전투구만이 심화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야기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신뢰이다.

그럼 이 신뢰라는 덕목은 어떻게 우리들 내면에서 자라게 되는 것일까? 신뢰는 정직이라는 덕목이 지켜질 때 발생하는 2차적 가치다. 부모와 자식간에서조차도 거짓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진다.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거짓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은 당연하다. 거짓은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삶의 흐름을 방해하고 뒤틀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그런 거짓이 반복되는 동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나, 거짓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삶의 자연스런 진보는 멈추게 마련이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제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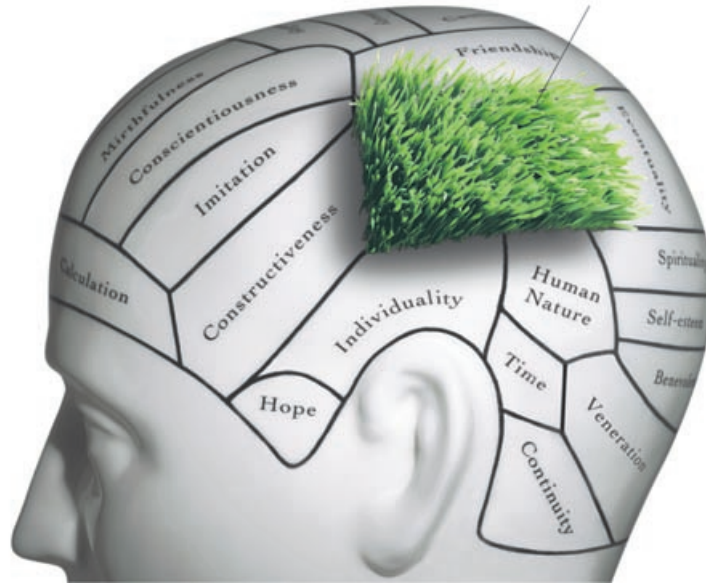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정직이 사회발전과 진보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는 말이다. 정직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는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사회정책의 프로젝트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속에서 어떻게 사회정책의 올바른 집행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부정부패란 결국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따라서 국가발전전략의 가장 큰 우선 순위는 정직한 사회 만들기여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15년이 넘게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직이라는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치르는 사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간에, 기업과 기업간에, 정부와 국민들간에 본대로 느낀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않고 있다. 이런 불신 속에서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만큼 사회진보는 늦어진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수준에서나 기업 수준에서나 정부와 국민 수준에서나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정직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우리 사회에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잘못된 관행이다. 법을 지키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이겨야 한다.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는 법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많다. 정직한 사회로 만들어 법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들이 빛을 보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러자면, 정직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 정직이라는 인프라의 구축에 우리 모두 나설 때다.

2005년 4월부터 집필해주셨던 조순 회장님의 칼럼이 지난 7월호로 마감되고, 8월호부터는 문용린 서울대 교수님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신 조순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E의 새로운 친환경 전략, 에코메지네이션

에코메지네이션은 환경을 의미하는 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imagination at work(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의 Imagination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고객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E가 채택한 새로운 친환경 전략이다. 에코메지네이션은 고객의 발전, 나아가 사회의 공영을 위해 상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GE의 약속을 담고 있다.

GE 에코메지네이션의 주요 약속

- 연구개발 투자 2배 증가
청정기술 연구개발비를 2004년 7억불 수준에서 2010년 15억불로 증대한다.
- 에코메지네이션 관련 제품을 매년 투입해 2010년 매출 200억불 달성
환경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2004년의 100억불에서 2010년에는 200억불 이상으로 확대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까지 30~40%감축, 장기적으로 2012년의 절대 배출량을 2004년 배출량 대비 1%감축한 양을 목표로 한다.
- 목표의 진척 상황 공표
목표의 달성 상황을 매년 '사회공헌 보고서'를 통해 측정 가능하고 투명한 형태로 보고한다.

<http://ge.ecomagination.com>
www.ge.co.kr



GE imagination at work